

## 제34호

발행일 2020. 8. 1.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Contents

#### 01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1p

책임연구원 김성훈(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은정(부경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김유리(부경대학교 행정학 박사)

#### 0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장애인 대상 대응 매뉴얼 11p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편찬부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22  
홈 페이지 www.ghf.or.kr

# 경북행복 Brief

## 01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설립과 확장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사업내용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맞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유지·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허원창·손동원, 2019).
-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시장성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측면은 공공재정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지속가능성임.

[그림 1] 사회적기업의 성격



## 2. 사회적기업 등장 배경

###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임.
  - 한국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같은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총 5가지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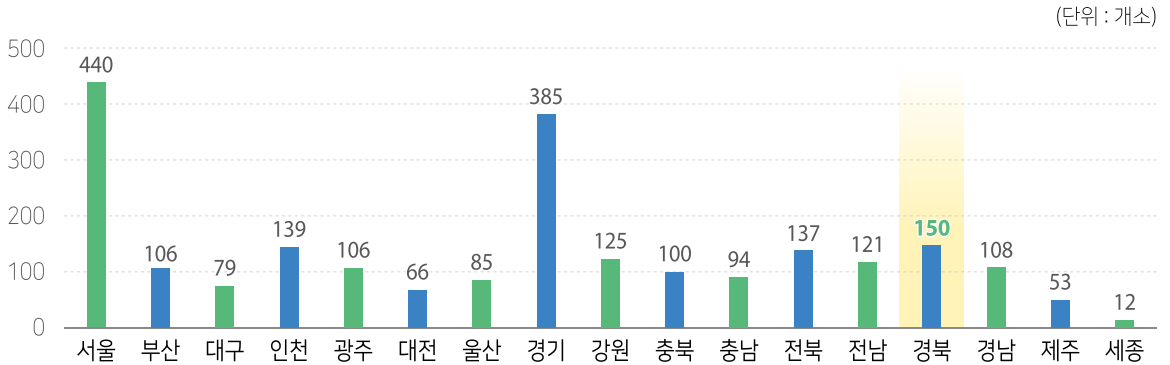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및 기준



## 2) 사회적기업 현황

- 2019년 9월 현재 전국의 사회적기업 2,306개 중 경상북도가 150개로, 서울 440개, 경기도 385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입.

[그림 3] 2019년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2019년 9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현황, 2019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9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 26개소, 혼합형 11개소, 사회서비스제공형 9개소, 창의혁신형 8개소의 순임.

[그림 4]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유형 현황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현황, 2019

## 3.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경상북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혹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경상북도 내 사회적기업 150개와 예비 사회적기업 122개를 합하여 총 272개 기관에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113부가 회수되었음.
  -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11부를 분석에 활용함.

### 2) 설문조사 내용

#### (1) 지속가능성

- 사회적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리적 성과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과도 필요함.

-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는 다소 상반되는 가치이지만 사회적기업에서는 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변수로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를 함께 측정함.
-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영리적 성과는 매출 증가율, 제품 및 서비스 재구매율, 매출 대비 인건비 총당 적정성의 총 5가지, 공익적 성과는 고용창출 증가율, 직원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의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공익적 및 영리적 성과 기대는 각 항목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영리적 기대 4문항, 공익적 기대 5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2) 사회적기업가 정신

-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경쟁적 적극성, 민주성, 사회적 목적성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배귀희(2011), 신광하(2016)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음.
  - 혁신성 5문항, 진취성 8문항, 위험감수성 4문항, 경쟁적 적극성 6문항, 민주성 3문항, 사회적 목적성 4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음.

## (3) 기업 및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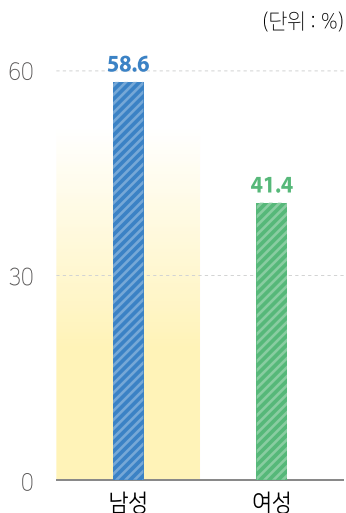
- 기업적 특성은 업종, 설립연도,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유형, 자본금 규모, 매출액 종업원 수, 취약계층 종업원 수, 사회적기업 신청 배경, 사회적기업 인증 시 애로사항, 사회적기업 운영 시 어려운 점,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 지역 내에서 운영의 어려움 등 13문항으로 구성됨.
- 일반적 특성은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전공분야 등 5문항으로 구성됨.

##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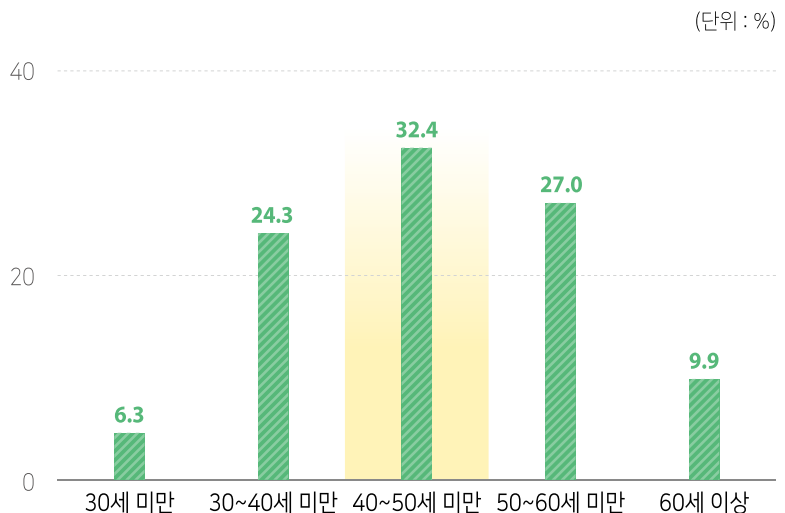
### (1) 사회적기업 특성

- 일반적 특성
  - 조사 대상자 111명 중 남성 65명(58.6%), 여성 46명(41.4%)이었으며, 연령은 40세에서 50세 미만 36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세에서 60세 미만 30명(27.0%), 30세에서 40세 미만 27명(24.3%)의 순이었음.

[그림 5]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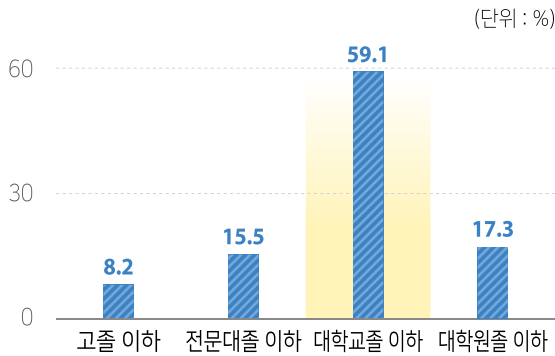


[그림 6]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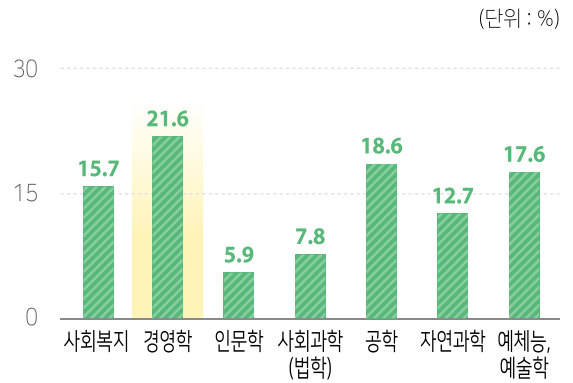


- 학력은 대학교졸 65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19명(17.3%)이었으며, 전공분야는 경영학이 22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학 19명(18.6%), 예체능 및 예술학 18명(17.6%) 순이었음.

[그림 7] 학력



[그림 8] 전공분야



■ 지역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모두 시 지역에 70% 이상 집중되어 있음.

[그림 9] 지역



■ 기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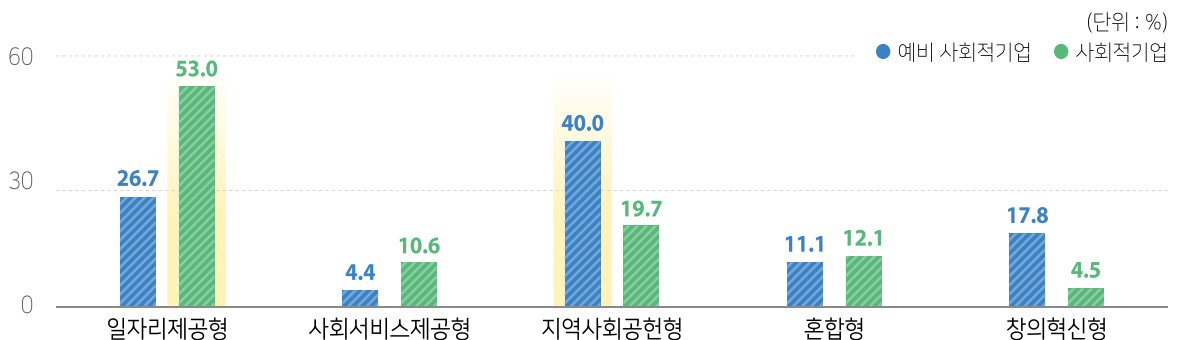
- 기업유형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공헌형(40.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자리제공형(26.7%), 창의혁신형(17.8%)의 순이었음.

· 반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53.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사회공헌형(19.7%), 혼합형(12.1%) 순이었음.

· 창의혁신형의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은 17.8%인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4.5%로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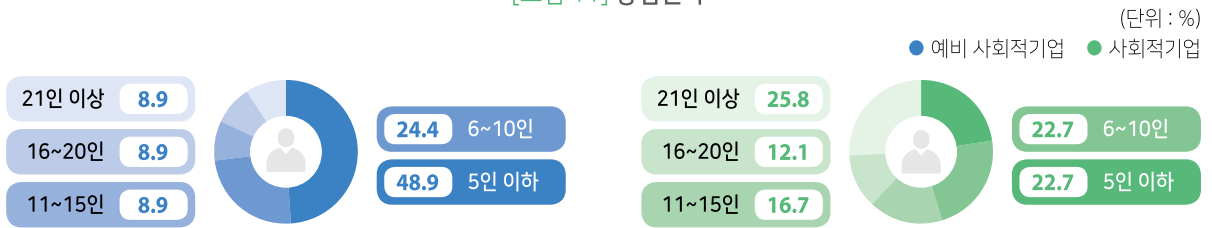
[그림 10] 기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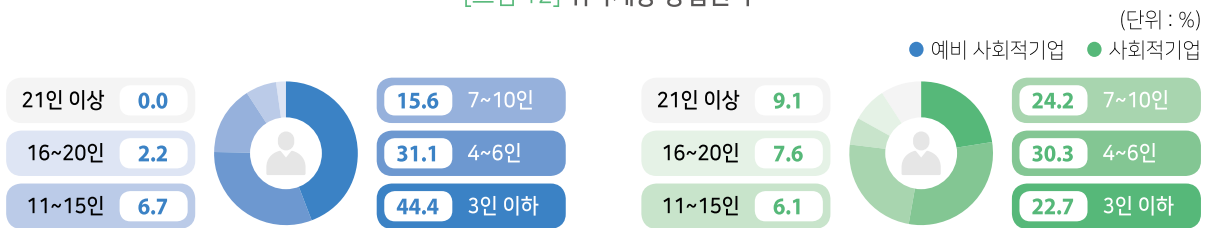
■ 종업원 수와 취약계층 종업원 수

- 종업원 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5인 이하가 50% 가까이 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6인 이상에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사회적기업은 21인 이상이 2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취약계층 종업원 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6인 이하가 75%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53%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취약계층의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인 예비 사회적기업은 없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9.1%이었음.

[그림 11] 종업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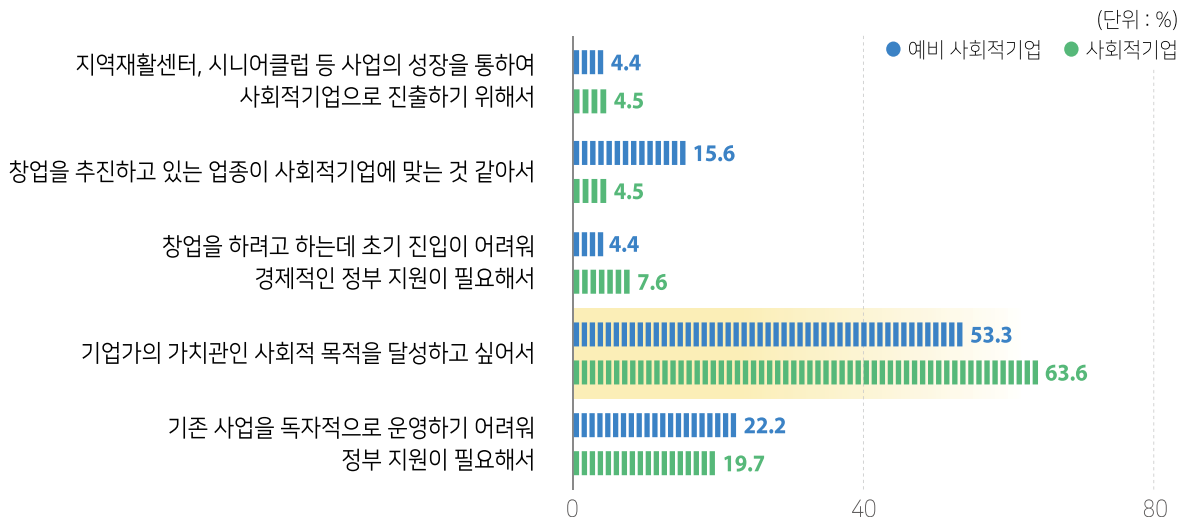
[그림 12] 취약계층 종업원 수



■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배경

- 기업가들이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보면 '기업가의 가치관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예비 사회적기업 53.3%, 사회적기업 63.6%로 타 요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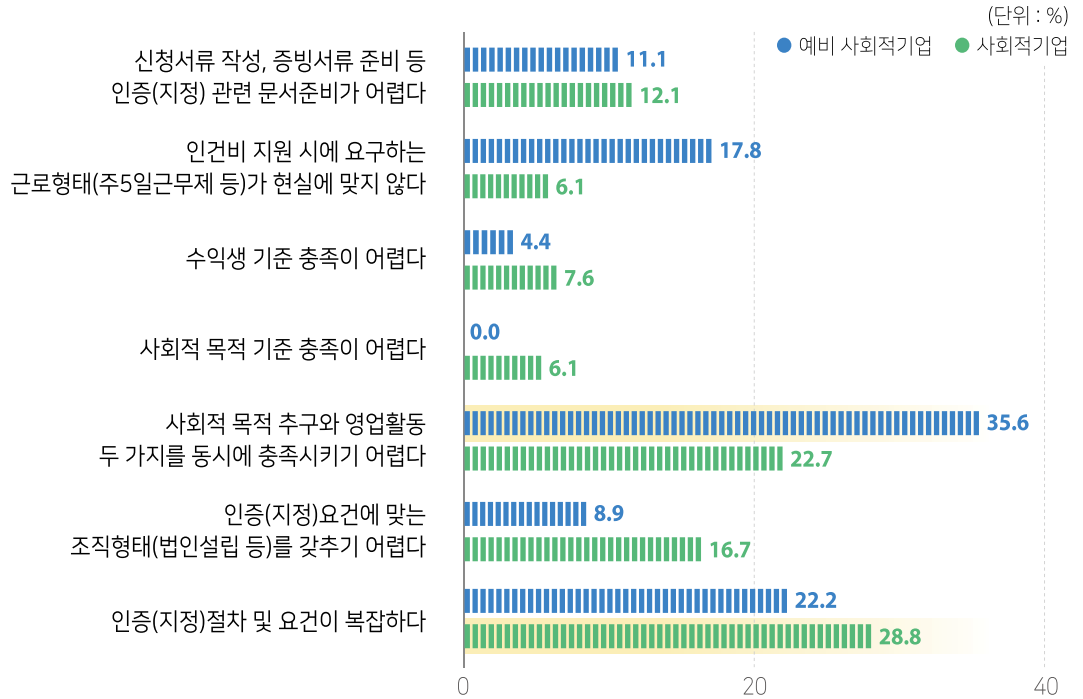
[그림 13]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배경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시 애로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영업활동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인증절차 및 요건이 복잡하다'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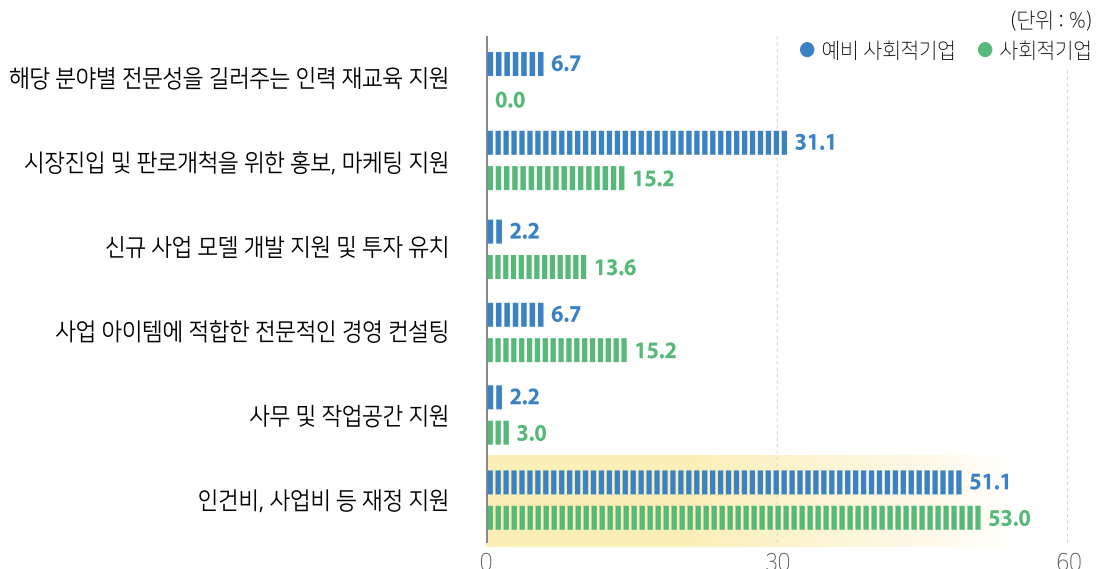
[그림 14]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시 애로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모두 인건비, 사업비 등의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음(예비 사회적기업 51.1%, 사회적기업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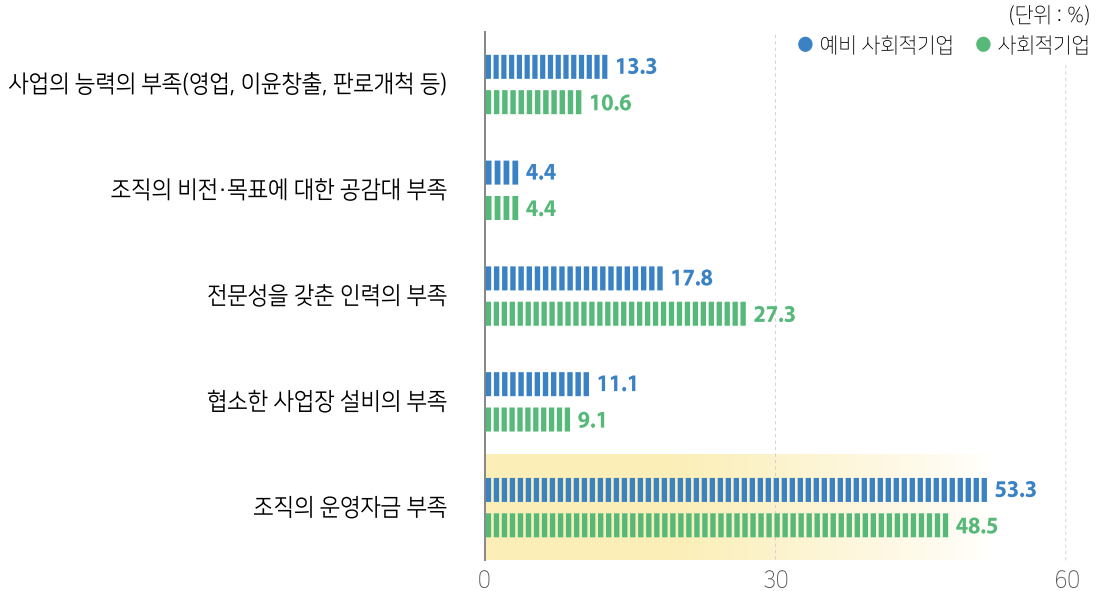
[그림 15] (예비) 사회적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모두 조직의 운영자금 부족을 보이고 있음(예비 사회적기업 53.3%, 사회적기업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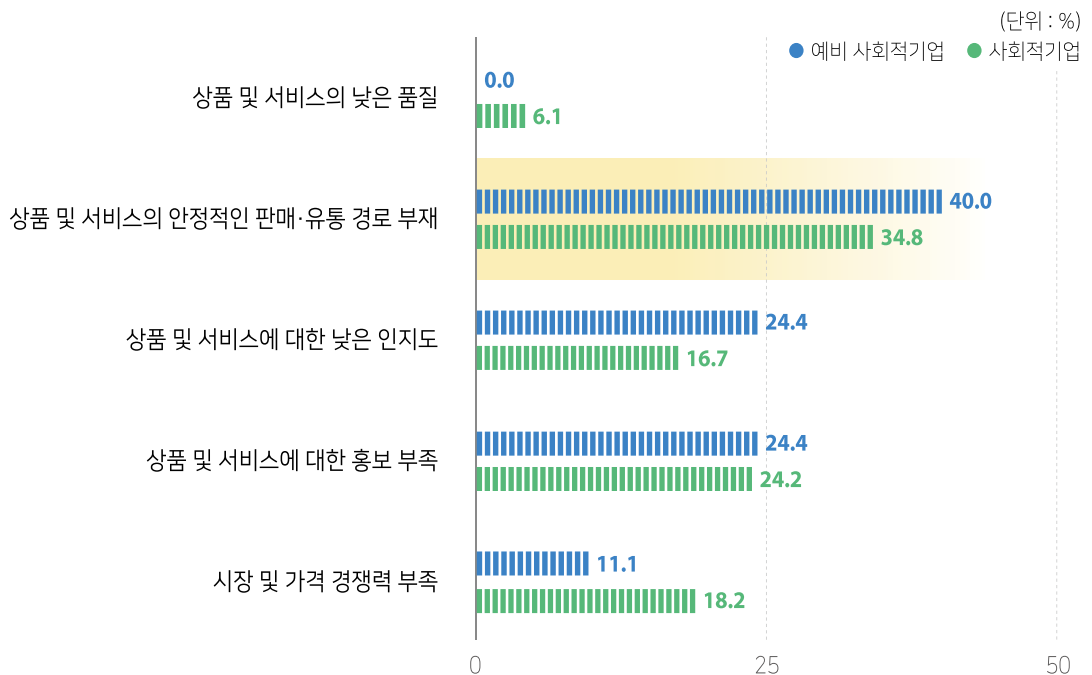
[그림 16]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

-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모두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판매와 유통 경로가 부재하다는 것임(예비 사회적기업 40.0%, 사회적기업 34.8%).

[그림 17]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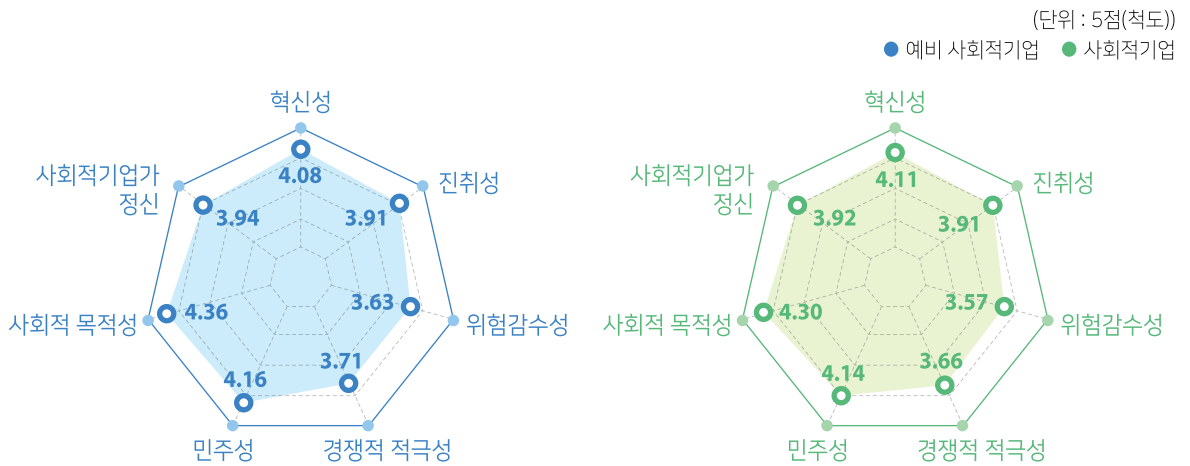


### (2) 사회적기업가 정신 비교

■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각 영역을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모든 영역을 합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3.94, 사회적기업 3.92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의 점수가 미비하게 높은 편이지만 거의 차이가 없음.

-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위험감수성, 경쟁적 적극성 그리고 민주성에서 사회적기업보다 높았으며, 사회적기업은 혁신성, 사회적 목적성에서 예비 사회적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림 18] 사회적기업가 정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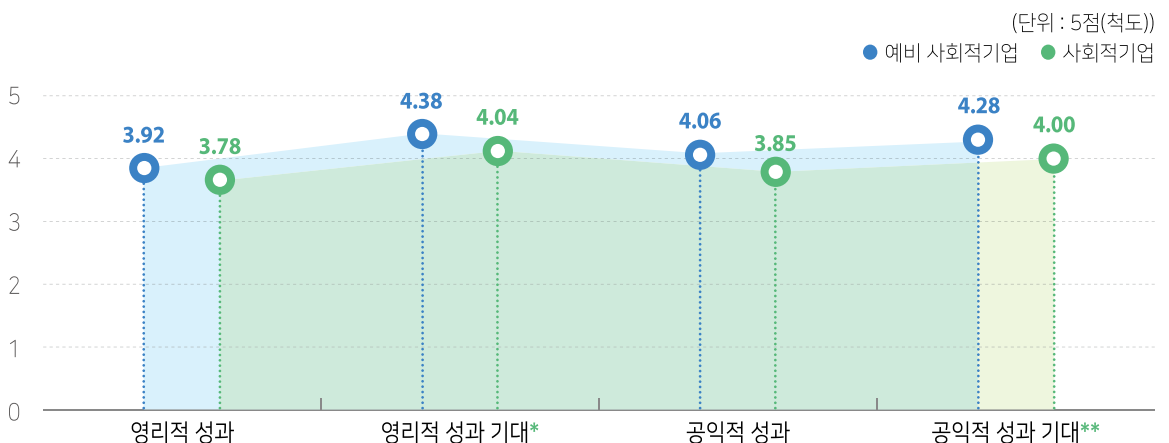


### (3) 영리적 성과 및 공익적 성과 비교

■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영리적 성과, 영리적 성과 기대, 공익적 성과, 공익적 성과 기대 모두 높게 나타났음.

-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영리적 성과 기대(\*p < .05), 공익적 성과 기대(\*\*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9] 영리적 성과 및 공익적 성과 비교



## 4. 제언

### 1)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확보

- 정부가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의 단편적 정책실행을 벗어나야 함.
  - 업종이나 유형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제공형 외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의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세부적 유형을 모두 관리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임.
  - 특히 다수의 사회적기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해당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지원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역사회공헌형이나 창의혁신형 등의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해당 지자체가 보다 면밀한 지역 분석과 사회적기업 분석을 통해 마련해야 함.

### 2) 사회적기업 지원 종류의 다각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자립성과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나 자원연결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현재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 현실적 장벽을 넘어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적, 한정적 인프라 지원책들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시점임.

### 3) 사후관리 맞춤형, 체계성 증진

-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명확하게 시간제한적(time-limited)임.
- 정해진 지원기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실적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여타의 관리나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특정 시간만 제한하여 지원하면 유지 가능한 영역도 있음.
  - 따라서 사후관리의 체계성을 사업 유형이나 특성별로 차별화해야 함.

#### ❖ 참고문헌

- 문주상·김완민. 2019.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 연구.
- 박내영. 2014.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배귀희. 2011.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5(2), 199-227.
- 신광하. 2016.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전략운영요소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란, 홍정화, 차진화. 2012.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0(2), 175-2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19. 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 허원창, 손동원. 2019. 한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결정요인. 창조와 혁신, 12(2), 1-28.

## 0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장애인 대상 대응 매뉴얼<sup>1)</sup>

### 1.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과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를 ① 사회적 거리두기(2.29~3.21) → ②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 ③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 ④ 생활 속 거리두기(5.6~)로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되어 시행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음.
  - 이에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였음.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하였음.

###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함.
  -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함.

[표 1]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25) '장애인 대상감염병 대응매뉴얼 첫 마련',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2020. 6.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의 내용을 요약 및 편집하였음.

###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함.
  -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임.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함.
  -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함.

###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함.
  -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함.

[표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 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다시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사람간의 접촉 최소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 원칙적 금지,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 권고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 스포츠 행사도 중단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	무관중 경기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하)에 맞추어 실시	모든 스포츠 행사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중단·제한	원칙적 운영 중단 - 단,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 운영 가능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원칙적 운영 중단 -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하는 차등적인 조치 (행정명령) 실시 (4m(약 1평)당 인원 제한)	고·중 위험시설 운영 중단 - 그 외 시설(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 등), 방역수칙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시설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 중단하도록 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원격 수업 병행 실시	등교·원격 수업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 최소화)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교차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밀집도를 더욱 줄임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 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체 등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유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교차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3.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등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음.
  -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음.
  - 외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 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음.
-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①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② 이동서비스 지원 ③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④ 돌봄 공백 방지 ⑤ 장애인 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였음.

[표 3] 장애유형별 감염병 주요 취약 특성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
 지체					
 시각	시각정보				
 뇌병변	이해, 표현				
 청각	음성 의사소통				
 발달 (지적, 자폐성)	의미 의사소통				
 내부기관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표 4]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구분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
주요 대상	시각, 청각, 언어,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인	내부장기의 장애 및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	주거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
고려 사항 및 코로나19 지원 사례	<p>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통역 및 해설 화면 제공</li> <li>영상수어 상담</li> <li>1339 24시간 문자 상담</li> <li>QR코드 등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배포</li> <li>선별검사소에서 그림 설명판 제공</li> </ul>	<p>이동서비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택-의료기관(선별진료소)-격리장소 간 이동지원</li> <li>·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특장차) 우선 이용</li> <li>·와상장애인 급급차 이용 이송 지원</li> <li>·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li> <li>·자가격리 대상 생필품, 방역물품 지원</li> </ul>	<p>감염 예방관리 및 필수 의료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확진 시 병원 우선 격리</li> <li>·전화 진료·처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li> <li>·공적마스크 범위 제한 없이 대리 구매 허용</li> <li>·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사업 정부 조달구매 대행 지원</li> </ul>	<p>돌봄 공백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 지원 추가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 인력 풀 확대</li> <li>·이용시설폐쇄(중단)이나 보호자 부재 시 가족돌봄, 긴급돌봄 실시</li> <li>·돌봄 및 이용 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마련 시행</li> </ul>	<p>장애인 시설 감염 예방 및 서비스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li> <li>·대체인력 우선 투입,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li> <li>·장애인 생활 시설 폐쇄 시 임시시설, 주변생활치료센터, 병원 등과 지역 대응체계 마련</li> <li>* 장애인 시설별 대응지침 기시행</li> </ul>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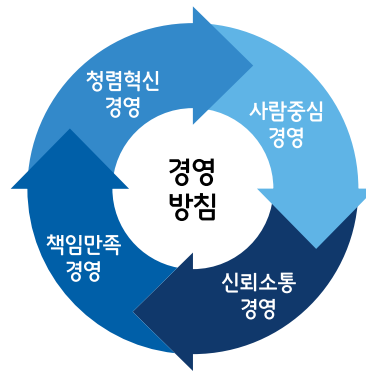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겨냅시다'를 별도 제작하여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하였음.

## 경북행복재단 미션 및 비전

경북복지, 다함께 열어요!

**MISSION**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 지역 사회서비스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



### 경영목표 & 추진전략

경북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1인당 2건	사회서비스 시설 100개(년) 기관 품질 관리	교육만족도 S등급 달성	사회적가치실현 90점 달성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기획 / 개발	보건복지시설 현장점검 및 지원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윤리인권 및 도민참여 경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 관련 이슈 선점</li> <li>• 보건복지 기초통계 작성 및 수요조사</li> <li>• 보건복지 기획 / 개발 및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 과제 발굴</li> <li>• 컨설팅 평가 / 인증</li> <li>• 시설 운영 및 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 교육 수요 조사 실시</li> <li>• 현장점검 및 전문성을 갖춘 강사풀(pool) 구성</li> <li>• 교육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인권 시스템 구축</li> <li>•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 확산</li> <li>• 도민경영 참여 활성화</li> </ul>

편집위원 김종필, 강민정, 김동화, 오난숙.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